



울산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방안 연구

김상우_시민행복연구실 연구위원



김상우

부산대 사회학박사
울산연구원 시민행복연구실 연구위원
svkim292@uri.re.kr

ULSAN RESEARCH INSTITUTE

울산연구원은

울산광역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2001년 설립된 市 출연 정책연구기관이다.
지역현안에 대한 열린 연구를 바탕으로 시민 등 정책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예측하고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연구자세로 과제개발과
학술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매년 연구보고서와 단행본, 정기간행물 등을 발간하고 있다.

기본과제 2021-21

울산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방안 연구

| 연구책임 |

김상우_시민행복연구실 연구위원

기본과제 2021-21

울산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방안 연구

연구책임 김상우_시민행복연구실 연구위원

발행인 임 진 혁

발행일 2021년

발행처 울산연구원
44720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6
전화 052.283.7700
팩스 052.289.7227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 울산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세계화’로 인해 서구의 문화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면서 우리 전통문화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는 지역 기반의 다양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문화콘텐츠의 성패가 고유한 자원에 토대를 둔 이야기와 독특한 문화적 특성에 기반을 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전통문화는 서구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문화콘텐츠에 신선함을 불어넣는 원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효율성과 적합성이라는 판단 기준으로 전통문화를 예부터 내려오는 고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인해 전통문화의 생활화에 많은 제약を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전통을 과거와 동일시하는 생각을 해소하고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울산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전통문화 진흥 및 계승의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 모든 울산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전통문화를 즐기는 방안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울산의 전통문화 보존과 창조적인 계승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2021년 12월

울산연구원장 임 진 혁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제4차산업혁명의 시기를 맞아 전통문화가 콘텐츠, 관광 등 관련산업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국가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제고하는 문화자원의 핵심 토대로 인정받고 있음
- 이러한 시대적 트렌드에 따라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2019.12.26.), 울산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그런데, 전통문화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지원이 아니라 창조적 재해석을 통한 문화적 계승과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울산의 전통문화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2086호)에 의해 규정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자 한 것임
- 또한, 울산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전통문화를 즐기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 등을 제시할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 주요 내용

○ 전통문화의 특징

- 오늘날에는 전통문화를 정적인 대상으로 취급하고 민족주의의 시야에서 고정된 특정한 문화 요소를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시간과 사회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소통의 과정으로 인식

○ 관련법률 및 정책현황

- 전통문화 관련 법률은 문화재 보호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이 있으나 전통문화는 부분적으로 언급되고 있음
- 조례를 통해 일상생활영역과 관련된 법률의 제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울산의 전통문화관련 조례는 6개임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2021 당초예산 : 565억 1,469만 4천원이며 전통문화관련 사업예산은 28.6%인 161억 6,135만 7천원임

- 울산의 전통문화활성화 정책은 축제 지원, 지방문화원 지원, 전통문화행사 지원, 공예산업 관련지원, 정신 및 인물 기념사업 등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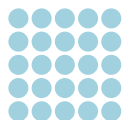
○ 전통문화를 발전시킨 국내외 사례로는 일본 아와지시마의 향사브랜드, 가나자와의 전통민속 공예 도시, 오스트리아의 배움터 기념관, 프랑스의 손에 든 도구, 한국의 전라북도 한지 인쇄, 이날치 밴드 등을 들 수 가 있음

○ 시민설문조사

- 시민500명에 대한 울산전통문화에 대한 경험과 의견 수렴
- 일반시민들은 관광지, 문화유적지, 복지 및 문화시설 등에 마련된 전통관련 요소들을 휴가 및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것을 간단히 체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민들이 전통문화를 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놀이 · 체험 · 교육 프로그램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생활공간, 놀이터, 유흥지 등을 활용한 전통놀이 및 체험, 교육 공간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정책제언

- 전통문화 육성 지원에 대한 추진방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를 비전으로 하고, 추진전략으로는 시민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환기를 위한 전략방안으로 '생활 속 전통문화 향유', 울산시의 전통문화에 대한 정책방안으로 '전통문화의 보호와 육성', 새로운 전통의 형성 정책방안으로 '새로운 전통의 창조'로 3가지 추진전략을 설정하였음
- 생활속 전통문화 향유에 대한 세부추진 사항으로는 전통문화시설의 확충, 지역전통문화 홍보 강화, 전통문화예술교육 강화, 전통문화의 보호와 육성의 세부추진 사항으로는 전통문화의 발굴과 기록화, 전통문화 인력 양성 및 지원확대, 전통문화관련 창업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새로운 전통의 창조에 대한 세부추진사항은 전통문화의 현대적 전승지원, 융합을 통한 전통 문화콘텐츠 개발로 구성되어 있음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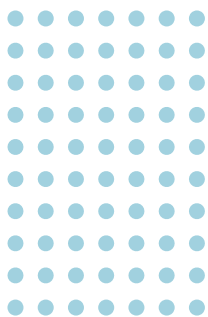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2. 연구 범위 및 내용	13
II	전통문화에 대한 정의 및 특징	
	1. 전통문화에 대한 정의	16
	2. 전통문화의 특징	17
III	관련법률 및 정책현황조사	
	1. 관련법률	20
	2. 정책현황	22
IV	국내·외 사례조사	
	1. 해외사례	28
	2. 국내사례	34
V	시민설문조사 및 시사점	
	1. 조사개요	38
	2. 시민설문조사 결과	38
	3. 시사점	47
VI	정책제언 및 결론	
	1. 추진방향과 추진전략	50
	2. 정책제언	52
	참고문헌	62
	부록	64

[표 1] 전통문화 관련 조례의 유형	21
[표 2] 광역단위 전통문화 관련 조례수	22
[표 3]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2021년 당초예산	23
[표 4] 7개 광역시도 문화재현황(2021.3 현재)	24
[표 5] 응답자 특성	39
[표 6]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정도	40
[표 7] 울산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적 요소	40
[표 8]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41
[표 9] 전통문화 정보 획득 경로	42
[표 10] 전통문화 향유방법	42
[표 11] 전통문화 참여 프로그램	43
[표 12] 전통문화 참여 방문 장소	44
[표 13] 전통문화 방문 목적	44
[표 14] 전통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이유	45
[표 15] 전통문화에 대한 만족도	45
[표 16] 전통문화지원 방향성	46
[표 17]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47

[그림 1] 아와지시마의 위치와 선향	29
[그림 2] 가나자와의 공예품과 시민예술촌	30
[그림 3] Lemort Denkmal의 각종 프로그램	32
[그림 4] L'Outil en Main의 워크숍	33
[그림 5] 전주 지숨	35
[그림 6] 이날치와 엠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36
[그림 7] 추진전략	51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내용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전통문화는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성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는 문화이며, 구성원이 공유하는 문화임
 - 일반적으로 전통문화는 고유한 문화에 외래문화들이 융복합되고 재생산되면서 시대를 이어 전해지기 때문에 전통문화는 연속적인 성질과 함께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문화재로 대표되던 전통문화는 단순히 보존해야 할 지역의 문화라고 인식됨으로써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었음
- 2000년대 이후 드라마, K-POP 중심의 한류가 확산되기 시작하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음
- 최근 전통문화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전통문화가 대중문화와의 결합을 통해 한류 콘텐츠의 품격과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한류 확산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임
- 또한 제4차산업혁명의 시기를 맞아 전통문화가 콘텐츠, 관광 등 관련산업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일뿐 아니라 국가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제고하는 문화자원의 핵심토대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시대적 트렌드에 따라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2019.12.26.), 울산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그런데, 전통문화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지원이 아니라 창조적 재해석을 통한 문화적 계승과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울산의 전통문화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음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2086호)에 의해 규정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 또한, 울산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전통문화를 즐기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 등을 제시할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 범위 및 내용

1) 공간 및 시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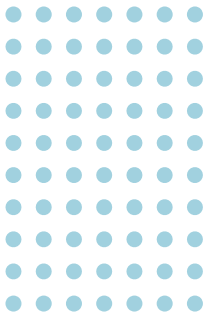
- 공간적 범위 : 울산광역시
- 시간적 범위 : 2021년~2023년(3년간)

2) 내용적 범위

- 전통문화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방안
- 전통문화에 대한 시민 교육 및 사회적 인식 환기 방안
-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Ⅱ 전통문화에 대한 정의 및 특징

1. 전통문화에 대한 정의
2. 전통문화의 특징



Ⅱ. 전통문화에 대한 정의 및 특징

1. 전통문화에 대한 정의

1) 사전적 정의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¹⁾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전통문화는 ‘그 나라에서 발생하여 전해 내려오는 그 나라 고유의 문화’라고 정의되어 있음

○ 전통과 문화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음

- 전통(傳統) : 명사,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오는 사상 · 관습 · 행동 따위의 양식

- 문화(文化) : 명사,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 ·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전통문화를 위와 같이 간단히 정의하고 있지만, 전통과 문화를 따로 정의를 할 때는 전통을 사상 · 관습 · 행동 등이 ‘계통’을 이루며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정의

1) stict.korean.go.kr/main/main.co 참고

하고 있음

- 여기서 계통(系統)이란 명사로 일정한 체계에 따라 서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의 통일적 조직으로 정의되어 있어 일정한 체계에 따라 전해 내려온 것을 의미함
- 또한 문화는 행동양식, 생활양식의 과정에서 이룩한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말하며, 예술 뿐만 아니라 사상, 관습, 행동 등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 광의의 문화개념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조례에서의 정의

- 울산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2086호)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음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음악, 무용, 미술, 건축, 서예, 음식, 의상, 공예 및 무예 등 우리 민족 고유의 예술 및 생활양식을 말한다.
- 울산광역시 조례에서의 전통문화는 문화적으로는 고유의 예술과 생활양식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통이라는 의미를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정체감과 자부심을 심어주고, 울산시의 이미지나 각종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전통문화로 정의하고 있음

2. 전통문화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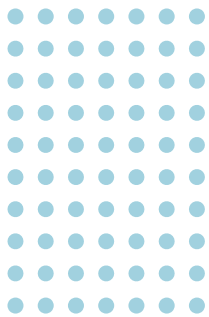
- 전통문화는 지역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지역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정서적 교감을 이끌어내는 원천적 요소임
- 이러한 특성을 가진 전통은 지역의 방문 및 관광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만족도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음
- 전통문화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전통문화의 축적성 :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문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현재까지 이어온 흐름 속에서 영속하는 문화로 오늘날에도 효용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미래의 문화창조의 원동력 역할을 하는 것을 중시함. 과거와 현재를 전혀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리이며,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능하고 있는 문화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전통문화의 적합성 : 전통문화의 내용에 대하여 전통은 언제나 선택적 전통임. 다시 말해서 한 사회의 전통은 과거로부터 대를 물려 내려온 중립적 유물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시점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전통의 요소를 선택하여 보존하고 재구성한 결과임. 오늘날 존재하는 전통은 특정한 요소가 강조되고 선별되는 반면 다른 요소는 무시되거나 제외되는 선택의 과정을 통해 재창조된 전통임. 전통은 전승 문화의 보전 취지보다는 현대에 어떤 가치와 역할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로 일컬으며 이는 미래의 새로운 가치를 생산해내는 재료가 될 수 있음
 - 전통문화의 변동성 : 전통문화는 자신들의 고유문화에 외래문화를 수용하며 재생산해 온 것으로 독창성만을 의미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 속에 고유성과 보편성이 융합되어 형성됨. 문화유산은 과거의 고정된 산물이 아니며, 시대변화에 따라 양식의 변형이 지속적으로 동반 되고 그 의미성과 가치를 추구하는 적응력을 내포하고 있음
- 따라서 오늘날에는 전통문화를 정적인 대상으로 취급하고 민족주의의 시야에서 고정된 특정한 문화요소를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시간과 사회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소통의 과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p 20)으로 인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현대사회 내 전통의 기층문화 위에서 다양한 문화변용 과정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형성된 민속 현상에 주목하고 있음

Ⅲ

관련법률 및 정책현황

1. 관련법률
2. 정책현황



Ⅲ. 관련법률 및 정책현황조사

1. 관련 법률

1) 주요 상위 법률

○ 문화재 보호법

-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를 지니는 법률(1962년 1월 10일 제정, 법률 제961호)임
-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 문화재의 활용을 명시하여 전통문화와 일정부분 관련이 있으나 문화재의 원형유지가 상위 목적으로 되어 있어 전통문화의 전체를 포괄할 수 없음

○ 문화예술진흥법

-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를 지니는 법률(1972년 8월 14일 제정, 법률 제2337호)임
- 이 법의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을 언급하고 있음
- 또한,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의 2항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을

위해 기금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3조(위원회의 구성) 2항에 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각 분야 및 지역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위의 법은 문화예술 전체를 위한 법이지 전통문화의 종합적 진흥에는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음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문화산업에 대한 기본 법률(1999년 2월 8일 제정)이라고 할 수 있음
- 전통문화의 진흥 등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지만, 제2조에서 문화산업을 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전통문화에 관련한 정의는 없음
- 단, 1항 자에서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을 정의함으로써 이것이 전통문화를 활용한 산업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 조례

- 전통문화와 관련된 법률들 중에는 문화재 관계 법률이 가장 많지만, 2000년대 이후 일상생활 영역과 관련된 법률의 제정이 증가하고 있음

○ 전통문화 관련 조례의 유형

- 전통문화 관련 조례는 총 851개임
- 전통문화 관련 조례의 유형은 보존, 전승에 관련된 조례가 54.6%, 시설, 단체 설립 및 운영 24.7%, 향유 및 활동 8.5%, 산업화 4.9%, 경관 및 환경 조성 3.1%, 국제위상 강화 2.8%,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1.3%의 순으로 나타남

[표 1] 전통문화 관련 조례의 유형

구 분	보존·전승	향유 및 활용	시설, 단체 설립 및 운영	산업화	경관 및 환경조성	추진 및 협력 체계 구축	국제위상 강화	합 계
개수	466	72	210	42	26	11	24	851
비율(%)	54.8	8.5	24.7	4.9	3.1	1.3	2.8	1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연구, p29

○ 광역단위 전통문화 관련 조례의 수

- 광역시 조례는 광주광역시(15개), 전라남도(13개), 부산광역시(12개), 충청남도(11개), 전라북도(11개), 대전광역시 (11개), 울산(6개)가 있음
- 전통, 전통문화, 문화유산, 향토, 한옥, 한지, 한복, 국악, 공예, 문화재, 민속 등과 관련한 조례가 많음
- 울산의 경우 : 울산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9.12.26., 울산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울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2020.09.24.,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지원과),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에 관한 조례(2019.12.27., 일자리경제국 중소기업과), 울산광역시 전통시장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2016.12.19., 일자리경제국 중소기업과), 울산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07.08., 일자리경제국 농축산과), 울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육성 조례(2017.09.28.,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표 2] 광역단위 전통문화 관련 조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8	12	5	8	15	11	6	8	10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9	5	11	11	13	10	9	10	16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연구, p29

2. 정책현황

1) 울산광역시 전통문화관련 예산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2021 당초예산 : 565억 1,469만 4천원

- 전통문화관련 사업예산 161억 6,135만 7천원(28.6%)

[표 3]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2021년 당초예산

구 분	예산(천원)	비율(%)	비 고
문화예술진흥(문화 및 관광/문화예술)	31,299,570	55.3	
- 문화예술진흥	21,068,900	37.3	
- 전통문화 발굴 육성	3,105,570	5.5	-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외솔한글한 마당, 민족고유의 전통문화육성, 청소년 인성교육, 전국시조명창대회, 울산민족예술제 육성, 처용문화제, 전통 및 현대문화 시설 운영(충의사) 등
- 지역문화기반시설 확충	7,055,100	12.5	
문화재 보존 관리(문화 및 관광/문화재)	13,055,787	23.1	
- 문화유적 복원, 정비	462,719	0.8	
- 문화재 복원, 정비	11,610,178	20.5	
- 반구대암각화 보존 및 세계유산 등재	982,890	1.7	
공공도서관 육성지원(교육/고등교육)	6,875,500	12.2	
-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6,875,500		
재무활동	5,000,000	8.8	
행정운영경비	353,837	0.6	

자료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1) 문화재 현황

○ 문화재 현황

- 울산은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등 모두 합하여 115개의 문화재가 있음
-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2개를 비롯해 20개가 있으며, 국가등록문화재는 6개, 시도지정문화재는 89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무형문화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4] 7개 광역시도 문화재현황(2021.3 현재)

구분	총계	국가지정문화재								국가등록 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소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	국가무형 문화재	국가민속 문화재		소계	시도유형 문화재	시도무형 문화재	시도 기념물	시도민속 문화재
합계	11,638	4132	348	2235	519	115	463	149	303	896	6610	3849	560	1,731	470
서울	1,832	1039	168	716	69	3	11	31	41	229	564	439	51	40	34
부산	401	82	6	54	6	2	7	5	2	22	297	202	25	51	19
대구	233	97	3	77	9	-	2	-	6	13	123	84	17	18	4
인천	242	69	1	29	20	1	13	5	-	9	164	69	29	64	2
광주	131	26	2	15	2	1	2	1	3	21	84	31	20	24	9
대전	168	16	1	11	1	-	1	-	2	22	130	57	24	47	2
울산	115	20	2	8	5	-	3	-	2	6	89	36	6	46	1

자료 : 문화재청 홈페이지

2) 울산시 전통문화 지원 프로그램

○ 전통문화 축제 육성 발전

- 쇠부리 축제, 마두희 축제

○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 민속예술 및 보존활동지원, 울산문화연구지 발간 등

○ 울산향교 등 전통문화행사 지원

- 석전대제, 기로연재현, 한문서당 운영, 충효교실 운영, 한시 백일장 개최, 향교스테이 등

○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 기간 : 2021년 9월~10월 중
- 전국경연대회 참가를 통해 울산의 전통놀이 문화를 발굴 보존하고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기여
- 2020년 : 울산 달리농악 참가

○ 토요일문화 기행

- 기간 : 2021년 4월~11월(8회, 둘째주 토요일)

- 대상 : 울산시민(회당 80명)
- 장소 : 울산 명소와 문화재 관련 유적지
- 내용 : 울산 명소 테마기행과 전통문화체험(국악공연, 천연염색 체험 등)

○ 공예문화산업 육성 지원

- 시 지정공예업체 개발, 생산장려금 지원 : 시 지정 공예업체 15개 선정, 업체당 3백만원 지원
- 울산 광역시 공예품 대전
 - 개최시기 : 2021년 7월
 - 개최장소 : 문화예술회관 1층 제1전시장
 - 참여규모 : 공예업체 및 개인 100여명
 - 주관 : 울산공예협동조합

○ 영호남 공예품 교류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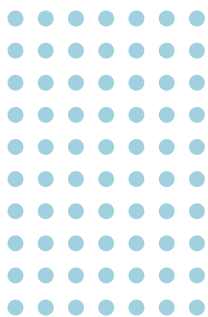
- 개최시기 : 2021년 10월~11월 중
- 사업내용 : 공예품 전시, 판매를 통해 공예업체의 경영수익 창출 및 영호남 문화교류촉진

○ 울산의 정신 및 인물기념사업

- 3.1만세운동 재현행사 : 4월/언양, 병영, 남창
- 기박산성 의병 축제 : 4월/기백이재 소공원
- 오영수문학제, 문학상 시상식 : 2021년 4월
- 오영수 백일장 : 2021년 7월
- 박상진 의사 추모제 : 2021년 8월 11일/박상진 의사 생가 및 울산문화예술회관
- 박상진 의사 추모 글짓기 대회 : 2021년 11월
- 외솔 한글 한마당 : 2021년 10월8일~10월 10일/ 개막식, 전시체험행사, 글그림공모전, 빛거리 조성 등
- 서덕출 문학상 : 2021년 12월 중/문학상 시상, 학술토론회

IV 국내·외 사례조사

1. 해외 사례
2. 국내 사례



IV. 국내·외 사례조사

1. 해외 사례

1) 일본 아와지시마의 향 : 향사(香司)브랜드 마케팅

- 일본은 아시아권에서 문화콘텐츠에 대한 경영지원과 자국문화콘텐츠 산업의 선진화 및 글로벌화에 앞장서고 있음
 - 아시아 권에서는 가장 먼저 문화경영 원리를 적용해 문화콘텐츠산업의 활성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술문화진흥기금을 설립하였으며, 특수법인 일본문화예술진흥회를 설립해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해 왔음
- 일본에서 가장 많은 향과 선향을 생산하는 지역은 효고현이고, 그 중에서도 아와지시마는 일본에 최초로 향목이 전해진 곳이자 일본 선향의 70%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향 산지임
- 아와지시마의 전통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 와(和)를 콘셉트로 한 향사(香司) 브랜드 마케팅 : 일본의 독특한 아이덴티티이며 전통정신의 정수로 의미를 수 있는 와(和)를 콘셉트로 한 전통과 혁신의 '일본의 향 시리즈' 개발
 - JAPAN 브랜드 육성사업을 활용한 세계화 전략 : JAPAN 브랜드 육성사업은 경제산업성 중소기업청 경영지원부 소규모기업 참서관실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일본상회의소, 전국상공회연합회에 위탁사업으로 2004년부터 시작된 국가사업임. 이 프로젝트를 통해 향에

2) 김영(2016), 일본의 전통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브랜드마케팅, 동아인문학 참고

대해, 향을 즐기는 방법에 대한 폭넓은 생활 현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불교적 이미지가 강한 일본 선향의 이미지를 불식하고 우수한 전통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아와지섬의 향사 브랜드를 확립해 프랑스와 독일에 이벤트 및 박람회에 참석하여 수출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함

[그림1] 아와지시마의 위치와 선향



아와지시마 위치



아와지시마 선향 공방의 생산물

자료 : 간사이공식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kansaiw&logNo=221060535423>)

2) 일본 가나자와 : 일본 전통민속공예도시

- 가나자와는 45만명이 거주하는 일본의 전통민속공예 도시임
- 일본의 가나자와시는 시를 관통해 흐르는 사이가와와 아이사노가와 두 하천을 따라 하천, 자연, 역사문화자원이 분포되어 있음
- 에도 시대 가기의 마에다 가문에서 비롯된 가나자와하쿠, 가기유젠 등의 전통공예와 다도, 노가쿠 등의 전통문화, 가기요리, 와가시 등의 식문화 등 갖가지 격조 높은 문화가 시작되었으며 오늘날까지 유지 및 전승되고 있음³⁾

3) 조광호(2017), 도시재생에서 역사문화콘텐츠 활용의 쟁점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 30 참고

○ 가나자와는 ‘혁신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전통은 전통으로서 남아있을 뿐’이라는 신념으로 전통 연구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이를 통해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발생시켜 또 다른 연구의 밑거름으로 만드는 창의 경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 중임

- 공예품에 대한 가나자와 시민의 높은 수준뿐만 아니라 기업체들의 투자 덕분에 만들어진 탄력적인 소비시장은 가나자와의 창의 경제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음(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0, pp. 32~33 참고)

○ 전통공예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인재개발기금을 운용하고, 가나자와 브랜드 공예품 개발 보조금을 지원하며, 해외 연수 및 해외 전시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음

- 지역내 가치를 가진 유희시설의 시민예술촌 및 작업실 전환을 지원

- 체계적인 칠기, 염색, 도자기 공예 관련 교육을 위해 지역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대학 교육이 세계적인 공예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1989년 공예산업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가나자와 공예대회를 구상해 1999년에 가나자와 세계 공예대회로 그 규모를 키웠으며 2003년부터는 세계적인 시각에서 가나자와 공예를 새롭게 조망하기 위한 세계공예 포럼도 개최함

[그림 2] 가나자와의 공예품과 시민예술촌



일본 가나자와의 금박공예



방직공장을 리모델링한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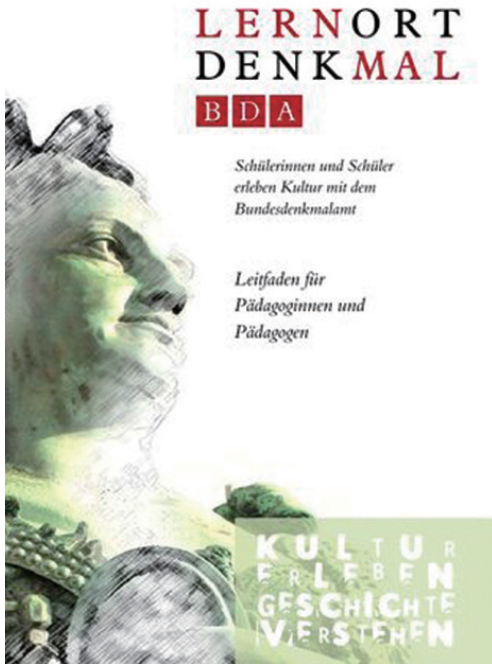
자료 : (좌) <https://japan-brand.jnto.go.jp/wp-content/uploads/2014/03/39-b.jpg>
(우) <http://www.sj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26>

3) 오스트리아 : 배움터 기념관(Lernort Denkmal)⁴⁾

- 배움터 기념관은 오스트리아의 BUNDESDENKMALAMT(연방기념물 사무소)가 학생들에게 문화적 환경보호를 가르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념물의 보호 및 유지 관리를 더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학교와 연방 기념물 사무소 간의 협력을 통해 젊은이들이 흥미진진한 방식으로 자신의 역사를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들 자신의 문화와 환경을 더 잘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문화유산에 대한 지속 가능한 책임감을 키우고 있음
- 대표적 프로그램
 - 학습장소 기념비 안내 : 모든 오스트리아의 학교, 유치원 및 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학교와 기념물 전문가의 협력을 통해 기념물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있음
 - 걸스데이 서비스 : 10세에서 16세 사이의 여고생에게 전통적인 직업 이외의 공공 서비스 분야의 경력 지향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 걸스데이 미니 : 유치원연령의 소녀들을 대상으로 기술과 과학에 대한 열정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 기념물 사진 :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일환으로 역사적인 건물에 대한 사진 수업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공간을 탐색하고 현장에서 응용 사진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 학교 기념일 : 기념비의 날의 규정하고 사무국과 협력하여 제시된 기념물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해 기념물 보존 분야의 역사적, 지형적, 사회적 문화적 관점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각 기념일에 발표하는 프로그램
 - 기념 케이스 : 3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모든 유형의 학교를 위한 기념물 보호, 기념물 연구 및 기념물 보존에 대해 교훈적으로 준비된 교재를 제공하여 주변환경에서 기념물을 파악하고 경험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움

4) 배움터 기념관 홈페이지 (<http://https://bda.gv.at/>) 참고

[그림 3] Lernort Denkmal의 각종 프로그램



학교 기념일 프로젝트 가이드 북



학교 기념일 프로젝트 수업 광경

자료 : 배움터 기념관 홈페이지 <https://bda.gv.at/lernort-denkmal/leitfaden-lernort-denkmal/>

4) 프랑스 : 손에 든 도구(L'Outil en Main)⁵⁾

○ 1987년 트루아에서 프랑스의 유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든 협회

○ 손에 든 도구는 장인들과 학생들을 잇는 현장 워크숍을 진행하여 장인들의 노하우 전수와 학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전문 직종들을 알리고 있음

- 실제 작업장에서 실제 도구를 사용하여 사람, 장인 또는 숙련 노동자, 은퇴한 자원 봉사자에 의해 9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들에게 수작업을 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작업의 노하우와 직업에 대한 다양한 식견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함으로써 경험이 풍부한 전문직 남녀가 '활기찬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워크숍은 농촌과 도시 지역 모두에서 젊은이와 노인 사이의 만남과 교류의 장소이며, 그 목표는 모든 수공예품, 건축 무역 등과 같은 유산 전수를 하는 것임

- 아이들에게 전통의 지식과 실습을 소개하여 도구와 잘한 일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유산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직업을 장려하는 한편 세대간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함께 더 잘살고 잘 늙어가고자 하는 프로젝트임

[그림 4] L'Outil en Main의 워크숍



자료 : L'Outil en Main 홈페이지 <http://loutilenmain.fr/acceuil.html>

5) 손에 든 도구 홈페이지(<http://loutilenmain.fr/acceuil.html>) 참고

2. 국내 사례

1) 전라북도 한지인쇄 : 전통소재와 첨단기술의 융합⁶⁾

○ 한지 인쇄의 번짐 문제의 해결을 통해 한지 사진을 개발

-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 혹은 거칠고 투박한 듯 깊은 질감을 가진 한지 위에 사진을 표현
- 4년간의 연구와 실험을 통해 어떤 첨가물도 섞지 않고 사진을 전통한지에 담아내는 기술 개발에 성공
- 한지의 질감을 살리면서도 일반사진인화와는 차별화된 한국적 정서를 표현

○ 개발 과정

- 초기에는 농촌 배경의 사진을 한지에 인쇄하여 파는 것이었으나, 점차 관광객들의 사진을 한지에 인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
- 인쇄의 번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이, 잉크 색과 노동의 조절, 사진에 맞는 종이선택 등의 실험을 통해 한지사진인쇄 장비 운용 노하우 획득

○ 한지섬유화 사업 진출

- 2016년 자동화 기계한지를 활용한 한지 섬유화 사업 진출(한지다이어리 커버 제작, 한지 박스 자동화, 한지지갑 및 한지가방 등 제작)

○ 현재 대중화와 산업화 문제 해결 노력

- 고급화 : 국내 수제한지를 이용한 명품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
- 대중화 : 한지와 첨단소재와의 합지를 통한 소재화

○ 한지포토 문화공간 ‘지숨갤러리’는 2013년 11월 1일 오픈 이후 전주 한옥마을의 상징적인 문화콘텐츠의 축을 담당했음

- 전통적인 문화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활용한 모델이며, 사업적 성과물로 연결시킨 좋은 사례 이기에 문화계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음

6) 김동영 외(2016), 전통문화와 첨단기술 융합산업 육성전략, 전북연구원

[그림 5] 전주 지숨

세계 최초
한지포토
문화공간
지숨 (Zisum)

지숨 열러하는 4년간의 오랜 연구 끝에 세계최초로 아미한 활거들도 있지 않고
사건을 관통하면서 담겨있는 기술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숨겨진 종이 한지에 담긴 사인들은 풍부한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질감과
무미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한지적 동서를 완벽하게 나타냅니다.



지숨 홈페이지의 일부



지숨 갤러리 내부

자료 : (좌)지숨홈페이지(<http://www.ezisum.com/>)
(우)전주시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jeonju_city/221833361413)

2) 이날치 밴드⁷⁾

○ 이날치 밴드는 2019년 결성된 음악 그룹임

○ 얼터너티브 팝 밴드 '이날치밴드'는 판소리 수궁가의 대목들을 판소리 음악의 현대적 변용을
통해 특별한 대중음악으로 재창조했음(임형택, 2021 참고)

- 베이스 기타 둘과 드럼만으로 구성된 밴드는 서양 음악과 동양음악의 크로스오버에서 흔히
화성악기를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리듬을 강조하는 타악기의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임
- 베이스를 둘로 두고 보컬을 여럿 둔 것도 서로 주고 받는 전통적인 음악 양식을 현대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의도임
- 수궁가의 일부를 가사로 하여 춤을 출수 있는 클럽 음악의 특성에 맞춰 얼터너티브 팝으로
편곡했음
- 온라인 공연으로 유튜브 채널인 온스테이지에 올린 〈범 내려온다〉는 별다른 홍보 없이도
2020년 1월 초 70만 건의 조회를 기록했다

7) [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B%82%A0%EC%B9%98_\(%EB%B0%B4%EB%93%9C\)](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B%82%A0%EC%B9%98_(%EB%B0%B4%EB%93%9C)) 참고

- 멜로디는 소리꾼들의 노래를 통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도록 했으며, 판소리의 전통적 공연 방식을 택해 생소함과 친숙함이 적절히 공존하는 유니크한 음악과 공연 형식을 만들
- 특유의 리듬과 동작에 외국인까지도 몰입시켰으며, 그 결과 인터넷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크게 퍼져났음

○ 엠비규어스댄스 컴퍼니와의 협업

- 엠비규어스댄스 컴퍼니는 대한민국의 현대무용그룹임
- 이날치의 <뽀 내려온다> 협업했으며, 음악은 물론 안무의 종류도 가리지 않는 매우 복합적이고 딱히 하나로 규정짓기 힘든 무용을 추구하고 있음
- 2020년 한국관광공사가 해외 시청자를 타겟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Imagine your KOREA에서 한국 홍보영상 Feel The Rhythm of KOREA 시리즈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⁸⁾

[그림 6] 이날치와 엠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이날치밴드 공연모습(멜론 뮤직어워드 2020)



엠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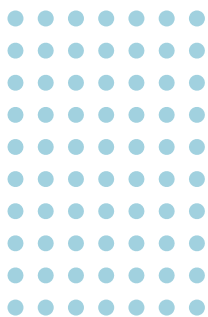
자료 : (좌) <https://www.ajunews.com/view/20201203223408424?photoldx=0>
(우)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2079900005>

8) <https://namu.wiki/w/%EC%95%B0%EB%B9%84%EA%B7%9C%EC%96%B4%EC%8A%A4%EB%8C%84%EC%8A%A4%EC%BB%B4%ED%8D%BC%EB%8B%88> 참고

V

시민설문조사 및 시사점

1. 조사개요
2. 시민 설문조사 결과
3. 시사점



V. 시민설문조사 및 시사점

1. 조사개요

- 울산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울산의 전통문화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와 정책방향 제공
- 조사설계
 - 대상 : 울산시민 500명
 - 표본추출방법 : 연령, 성별, 거주지에 따른 할당 표집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 면접 조사 및 자기기입식 조사
 - 조사기간 : 2021년 5월~6월
- 조사분석
 -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

2. 시민 설문 조사 결과

- 응답자 특성
 - 응답자는 남성 241명(48.2%), 여자 259명(51.8%)이며,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았음. 남구 주민 가장 많았으며, 대졸(전문대졸 포함)이 63.2%로 가장 많이 응답했음. 직업은 주부가 가장 많았고, 자영업, 사무, 생산, 판매 등 다양함

[표 5] 응답자 특성

구 분		빈 도 (명)	비 율 (%)
성별	남 자	241	48.2
	여 자	259	51.8
	전 체	500	100.0
연령	20대 이하	82	16.4
	30대	111	22.2
	40대	121	24.2
	50대	110	22.0
	60대 이상	76	15.2
	전 체	500	100.0
거주지역	중 구	96	19.2
	남 구	136	27.2
	동 구	75	15.0
	북 구	95	19.0
	울주군	98	19.6
	전 체	500	100.0
학력	고졸 이하	156	31.2
	대졸(전문대졸 포함)	316	63.2
	대학원졸 이상	28	5.6
	전 체	500	100.0
직업	자영업	51	10.2
	사무.기술직	85	17.0
	생산.기능직	84	16.8
	판매.서비스직	41	8.2
	경영.관리직	16	3.2
	자유.전문직	57	11.4
	농.어업	5	1.0
	주 부	114	22.8
	학 생	39	7.8
	기 타	8	1.6
	전 체	500	100.0

○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4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심이 많다” 22.2%, “관심이 없다” 18.8%, “매우 관심이 많다” 7.2% 순으로 나타남

[표 6]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정도

구 분	빈 도 (명)	비 율 (%)
관심이 없다	19	3.8
관심이 없다	94	18.8
보통이다	240	48.0
관심이 많다	111	22.2
매우 관심이 많다	36	7.2
합 계	500	100.0

○ 울산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적 요소

- 울산시민들은 울산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적 요소에 대해 1순위에서는 “태화루, 동헌, 사찰 등 전통구조물”이 49.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막걸리, 고래고기 등 지역 전통음식” 21.6%, “마두희, 불매놀이 등 전통 축제와 놀이” 14.0% 순으로 나타남. 한편 2순위에서는 “막걸리, 고래고기 등 지역 전통음식”이 3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마두희, 불매놀이 등 전통 축제와 놀이” 23.8%, “태화루, 동헌, 사찰 등 전통구조물” 21.0% 순으로 나타남

[표 7] 울산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적 요소

구 분	1순위		2순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통구조물(태화루, 동헌, 사찰 등)	248	49.6	105	21.0
지역 전통음식(막걸리, 고래고기 등)	108	21.6	168	33.6
전통예술품(국악, 공예, 미술, 무용 등)	51	10.2	50	10.0
전통 축제와 놀이(마두희, 불매놀이 등)	70	14.0	119	23.8
명절풍습과 민속(차례, 세배 등)	18	3.6	32	6.4
관혼상제 등의 전통의례(전통혼례 등)	5	1.0	25	5.0
기 타	-	-	1	0.2
합 계	500	100.0	500	100.0

○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조사한 결과, 전통문화는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시민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자긍심을 부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통문화가 문화산업의 자원으로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므로 오늘날에 맞게 다양하게 변화하여 발전시켜야 하지만, 무조건적인 현대화로 인한 훼손은 막고 후대에 잘 전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8]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척도 평균
1) 전통문화는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요소다	2 (0.4)	26 (5.2)	145 (29.0)	259 (51.8)	68 (13.6)	3.73
2) 전통문화는 시민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자긍심을 부여한다	2 (0.4)	27 (5.4)	159 (31.8)	248 (49.6)	64 (12.8)	3.69
3) 현대화로 인한 전통문화의 훼손을 막고 후대에 잘 전해주어야 한다	2 (0.4)	23 (4.6)	116 (23.2)	199 (39.8)	160 (32.0)	3.98
4) 전통문화는 오늘날에 맞게 다양하게 변화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5 (1.0)	24 (4.8)	122 (24.4)	242 (48.4)	107 (21.4)	3.84
5) 전통문화는 문화산업의 자원으로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다	6 (1.2)	28 (5.6)	140 (28.0)	234 (46.8)	92 (18.4)	3.76

○ 전통문화 관련 정보획득 경로

- 평소 전통문화와 관련된 정보는 “인터넷 사이트 및 스마트폰”을 통해 얻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포스터, 전단지, 현수막, 전광판 등” 25.0%, “신문, 잡지, TV, 라디오” 18.6%, “시·구·군청 및 주민센터” 12.4% 순으로 나타남

[표 9] 전통문화 정보 획득 경로

구 분	빈 도 (명)	비 율 (%)
시·구·군청 및 주민센터	62	12.4
인터넷 사이트 및 스마트폰	192	38.4
우편 혹은 이메일	4	0.8
신문, 잡지, TV, 라디오	93	18.6
포스터, 전단지, 현수막, 전광판 등	125	25.0
주변 친구, 동료, 가족, 동호회 등	22	4.4
학교 혹은 직장	2	0.4
합 계	500	100.0

○ 전통문화 향유 방법

- “지역축제 및 문화체험 행사를 통해” 전통문화를 향유한다는 응답이 44.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통해” 15.2%, “문화재 관람 혹은 역사지관람을 통해” 13.6%,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11.4% 순으로 나타남

[표 10] 전통문화 향유방법

구 분	빈 도 (명)	비 율 (%)
지역축제 및 문화체험 행사를 통해	222	44.4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통해	76	15.2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57	11.4
문화재 관람 혹은 역사지관람을 통해	68	13.6
학술연구(서적, 논문, 포럼 등)	9	1.8
인터넷 등 모바일 활용	47	9.4
TV프로그램	20	4.0
기 타	1	0.2
합 계	500	100.0

○ 전통문화 참여 프로그램

- 지난 1년간 참여했던 전통문화 관련 프로그램들을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명당 평균 2.2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됨. 1년간 전통문화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응답자는 8.4%였음
- “문화유적 탐방”이 5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통예술공연 관람” 31.2%, “전통놀이” 27.0%, “세시풍속 체험” 25.2%, “한옥체험” 22.4% 순으로 나타남. 기타 응답으로는 “전통 음식문화 프로그램”, “쇠부리축제”, “인사동 탐방” 등이었음

[표 11] 전통문화 참여 프로그램

구 분	빈 도 (명)	비 율 (%)
한복체험	80	16.0
예절·충효 교육	53	10.6
한옥체험	112	22.4
전통공예(한지, 목공예 등)	63	12.6
전통놀이(연날리기, 제기, 팽이, 투호 등)	135	27.0
전통예술공연 관람(국악, 전통무용 등)	156	31.2
전통예술교육 참여(사물놀이 등)	50	10.0
문화유적 탐방(동헌, 태화루, 암각화 등)	295	59.0
전통의례, 관혼상제 체험(전통결혼식 등)	28	5.6
세시풍속 체험(귀밝이술, 부럼깨기 등)	126	25.2
기 타	3	0.6
합 계	500	100.0

○ 전통문화 참여 방문 장소

- 지난 1년간 전통문화 체험을 위해 주로 방문한 곳은 “문화재, 고찰 등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가 49.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원, 박물관, 미술관 등의 생활근린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28.8%, “민속촌, 테마파크 등 전문 공연·체험시설” 13.6% 순으로 나타남

[표 12] 전통문화 참여 방문 장소

구 분	빈 도 (명)	비 율 (%)
생활근린시설(공원) 및 문화복지시설(박물관, 미술관 등)	144	28.8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문화재, 고찰 등)	249	49.8
전문 공연 및 체험시설(민속촌, 테마파크 등)	68	13.6
전통문화 전수회관	13	2.6
학교 등의 교육시설	12	2.4
기 타	14	2.8
합 계	500	100.0

○ 방문 주된 목적

- 전통문화 관련 시설을 방문한 주된 목적은 “여가, 휴식, 관광”이 49.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육” 28.4%, “문화체험” 17.8% 순으로 나타남

[표 13] 전통문화 방문 목적

구 분	빈 도 (명)	비 율 (%)
문화체험	89	17.8
교육(자녀교육포함)	142	28.4
여가, 휴식, 관광	249	49.8
학술연구	3	0.6
취 미	14	2.8
기 타	3	0.6
합 계	500	100.0

○ 전통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이유

-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2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통관련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17.4%, “여가시간이 부족해서” 17.0%, “접근성이 낮아서” 14.4%, “관심과 흥미가 없어서” 12.8% 순으로 나타남

[표 14] 전통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이유

구 분	빈 도 (명)	비 율 (%)
관심, 흥미가 없어서	64	12.8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	134	26.8
사용 및 체험하는데 불편해서	34	6.8
여가시간이 부족해서	85	17.0
비용이 많이 들어서	20	4.0
전통관련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87	17.4
접근성이 낮아서	72	14.4
기 타	4	0.8
합 계	500	100.0

○ 전통문화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 전통문화 지원정책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를 5점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울산시의 전통문화 지원책에 대해 평균 3점 이하로 평가함. 항목별 큰 응답차이는 없으나, 전통문화 지원의 공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음

[표 15] 전통문화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척도 평균
1) 울산시는 전통문화 관련 분야에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다	13 (2.6)	118 (23.6)	275 (55.0)	81 (16.2)	13 (2.6)	2.93
2) 전통문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14 (2.8)	125 (25.0)	268 (53.6)	77 (15.4)	16 (3.2)	2.91
3) 전통문화 관련 정책이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환경변화에 잘 대응 하고 있다	17 (3.4)	113 (22.6)	265 (53.0)	87 (17.4)	18 (3.6)	2.95
4)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1 (4.2)	132 (26.4)	261 (52.2)	77 (15.4)	9 (1.8)	2.84
5) 전통문화 관련 전문인력의 수준이 높다	20 (4.0)	113 (22.6)	281 (56.2)	73 (14.6)	13 (2.6)	2.89
6)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	20 (4.0)	146 (29.2)	233 (46.6)	78 (15.6)	23 (4.6)	2.88

○ 전통문화지원 방향성

- 향후 전통문화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통의 원형 유지 및 가치 보존”, “지역 전통문화의 자생력 강화”, “문화유산의 전승”, “전통의 대중화를 위한 저변 확대”, “울산시 주도 지원정책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16] 전통문화지원 방향성

(단위 : 명, %)

구 분	A가 훨씬 더 중요	A가 약간 더 중요	A,B 둘다 중요	B가 약간 더 중요	B가 훨씬 더 중요	B
1) 전통의 원형 유지 및 가치 보존	87 (17.4)	107 (21.4)	186 (37.2)	83 (16.6)	37 (7.4)	전통의 산업화 및 융복합 확대
2) 지역 전통 문화의 자생력 강화	59 (11.8)	99 (19.8)	194 (38.8)	107 (21.4)	41 (8.2)	전통문화의 세계화 확대
3) 문화유산의 전승	52 (10.4)	87 (17.4)	192 (38.4)	119 (23.8)	50 (10.0)	전통문화의 현대적 활용
4) 전통문화 전문단체의 지원 강화	34 (6.8)	72 (14.4)	205 (41.0)	134 (26.8)	55 (11.0)	전통의 대중화를 위한 저변 확대
5) 울산시 주도 지원정책 강화	54 (10.8)	77 (15.4)	209 (41.8)	99 (19.8)	61 (12.2)	전통문화 생태계 활성화 추진

○ 전통문화활성화를 위한 지원

- 전통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 전승 및 시민향유를 위한 시설 마련”, “전통 문화의 경제적 가치 창출 강화 및 창업지원”, “전통문화 관련 전문인력 육성”, “전통문화 관계 정보 서비스 체계 구축”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17]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단위: 명,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척도 평균
1)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확대	6 (1.2)	28 (5.6)	148 (29.6)	260 (52.0)	58 (11.6)	3.67
2) 전통문화 전승 및 시민향유를 위한 시설 마련	2 (0.4)	25 (5.0)	139 (27.8)	245 (49.0)	89 (17.8)	3.79
3) 전통문화 관계 정보 서비스 체계 구축	1 (0.2)	21 (4.2)	164 (32.8)	233 (46.6)	81 (16.2)	3.74
4) 전통문화 관련 법 구축 및 제도적 기반 마련	3 (0.6)	27 (5.4)	191 (38.2)	214 (42.8)	65 (13.0)	3.62
5) 전통문화의 경제적 가치 창출 강화 및 창업지원	4 (0.8)	28 (5.6)	150 (30.0)	219 (43.8)	99 (19.8)	3.76
6) 전통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2 (0.4)	32 (6.4)	175 (35.0)	220 (44.0)	71 (14.2)	3.65
7) 전통문화 관련 전문인력 육성	2 (0.4)	30 (6.0)	156 (31.2)	216 (43.2)	96 (19.2)	3.75

3. 시사점

1) 전통문화에 관한 시민의 관심 영역

○ 시민들은 전통문화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음

-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묻는 질문에 48.0%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음

○ 또한, 울산의 전통문화에 대한 요소는 전통구조물, 음식과 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음

- 즉 일반시민들은 주변의 전통적인 건축물(한옥: 태화루, 동헌, 전통사찰 등)을 울산의 전통 문화적 요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으며, 전통적인 음식(울산 전통 막걸리, 고래고기)를 두 번째로 생각했고, 마지막으로 마두희나 불매놀이 같은 전통축제와 놀이를 생각했음

- 전통문화 참여는 문화유적(동헌, 태화루, 암각화 등)을 참여한 것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전통예술공연(국악, 전통무용), 전통놀이(연날리기, 제기차기), 세시풍속(귀밝이술, 부럼 깨기 등)을 즐기고 있음

2) 울산시민의 전통문화 향유 및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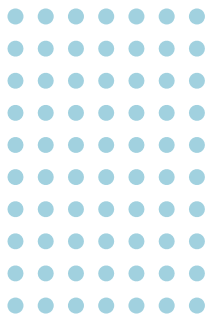
- 울산시민들은 전통문화를 향유하고 체험하는 것은 관광지, 문화유적지, 복지 및 문화시설 등에 마련된 전통관련 요소들을, 휴가 및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것을 간단히 체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전통문화 향유 방법은 의도적으로 먼 곳으로 전통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가까운 곳에, 잠시 틈을 내어서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이해됨
- 체험도 익숙한 것에 대한 체험이 주된 것으로 생각됨. 왜냐하면 참여프로그램 등에서 응답한 것을 보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곳에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임

3) 울산시민을 위한 전통문화 활성화 정책

- 울산시민의 전통문화예술 향유 양태를 볼 때, 울산시민들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상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 관련 공간 혹은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 이를 통해 시민들이 전통문화를 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놀이 · 체험 ·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생활공간, 놀이터, 유흥지 등을 활용한 전통놀이 및 체험, 교육 공간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또한 어렸을 때부터 전통문화에 익숙할 수 있도록 학교와 박물관 등의 유관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방법의 교육프로그램도 창출함으로써 전통이 소중하고도 지켜가야 할 중요한 문화임을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VI 정책제언 및 결론

1.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2. 정책제언
3. 결론



VI. 정책제언 및 결론

1. 추진방향과 추진전략

1) 기본방향

○ 비전 :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울산

○ 기본방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울산'으로 설정

- 울산은 역사적으로 60년대 이후 중공업을 바탕으로 급속하게 발전한 도시로 젊고, 현대적인 도시로 이미지화되어 있음
- 그렇지만 울산 반구대, 천전리 암각화를 비롯해 각 시대별로 다양한 문화적 유산과 전통들이 남아있는 도시임
- 전통문화라는 개념이 앞에서 살펴보았듯, 단순히 지난 시대에 이미 이뤄진 생활양식, 사상, 예술 등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가치나 역할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이며 이를 통해 미래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내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임
- 따라서 울산은 지역의 전통문화와 현대의 첨단 문화가 서로 공존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내는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도시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2) 추진전략

[그림 7] 추진전략

생활 속 전통문화 향유	전통문화의 보호와 육성	생활 속 전통문화 향유
● 전통문화시설 확충 ● 지역전통문화 홍보 강화 ● 전통문화예술교육 강화	● 전통문화의 발굴과 기록화 ● 전통문화 인력 양성 및 지원확대 ● 전통문화관련 창업지원	● 전통문화의 현대적 전승지원 ● 융합을 통한 전통문화콘텐츠 개발

○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울산의 비전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생활속의 전통문화 향유, 전통문화의 보호와 육성, 새로운 전통문화의 창조로 설정하였음

- 첫째, 생활 속 전통문화의 향유는 전통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전통문화와 인식의 개선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즐기게 하기 위한 전략임. 시민의식조사를 바탕으로 볼 때, 시민이 전통문화를 일상생활 속에서 즐기기 위해서는 생활 주변에서 전통문화를 쉽게 발견하고, 이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강구함. 이를 위해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전통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전통문화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하며, 전통문화예술 교육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전통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둘째, 전통문화의 보호와 육성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전통문화의 보호와 육성 방안 가운데 보완해야 할 점들에 대한 전략임. 전통문화의 지속적인 발굴과 기록화는 각종 사료편찬이나, 생활사에 대한 기록, 무형문화재 발굴 등의 사업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통문화 인력 양성 및 지원확대는 전통문화 전승자들 등을 위한 정책방안 및 젊은 전통문화 전승자 발굴을 위한 정책, 전통문화관련 창업지원은 전통문화의 산업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 등의 과제를 제안함
- 셋째, 새로운 전통의 창조는 전통과 현대의 융합을 통해 미래의 새로운 전통을 창조해내고자 하는 방안임. 이를 위해 전통문화의 현대적 전승 지원, 융합을 통한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음. 전통문화의 현대적 전승지원은 울산의 전통문화 발굴과 연관된 문화산업인 에이팜의 지원에 관한 것이며, 융합을 통한 문화콘텐츠 개발은 이른바 CT 등의 기술과 다양한 장르의 문화적 전통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전통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임

2. 정책제언

1) 생활 속 전통문화 향유

○ 전통문화시설의 확충

- 전통문화 전승관 건립

- 전통문화전승관은 지역 전통문화예술가들의 오랜 기간 동안의 숙원사업이었으나 현재 까지 건립되고 있지 않음
- 전통문화 전승관은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보유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또 다른 전승자를 용이하게 양성할 수 있는 시설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전승관은 전통문화 전수자 및 생산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와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장르끼리의 융복합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임. 아이디어와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전통을 창조할 가능성도 클 것으로 예상됨
- 전통문화 전승관은 전통문화예술가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한 교육과 체험의 복합문화 공간의 기능도 함께 함으로써 울산시민들이 울산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

- 언양향교 인예교육 대학당 건립

- 향교는 조선시대의 공식적인 지방교육기관으로 시문을 짓는 사장학과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경학으로 이뤄짐
- 언양향교는 현재 울주군 삼남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7년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어 있음
- 인예교육은 전통문화의 보존 전승과 유교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시민 교육 및 홍보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예상됨
- 인예교육당은 생활관, 음식문화체험관, 심신수양체험장, 힐링 길 등으로 구성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수련과 전통체험을 위한 복합공간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통놀이터의 확충

- 시민들의 전통문화 향유양태는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에서, 익숙한 전통체험을 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놀이터, 공원, 복지시설 등에 전통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전통문화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
- 이를 통해 시민들의 전통에 대한 인식, 즉 시민들의 가까이에 있는 익숙한 문화, 일상생활 속에 있는 전통문화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함

○ 지역전통문화 홍보 강화

- 지역전통문화 지도 제작

- 시민들은 지역의 전통문화를 향유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이 관련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임
- 전통문화 관련 장소, 프로그램 등을 수록한 지역전통문화 향유 지도를 제작하고, 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배포하여 시민들이 쉽게 찾아가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특히 전통문화 순례길 등을 새롭게 구성하고 전통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예를 들면, 천주교 순례길, 불교 순례길 등을 마련하여 이를 지역 전통문화지도에 표시함으로써 종교인들이 쉽게 지역을 찾아가 볼 수 있도록 함. 혹은 술맛 순례길 등을 통해 지역의 독특한 전통주를 찾아가 보는 순례길 등을 마련함으로써 관광콘텐츠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전통문화 생활 플랫폼 개설

- 지역의 전통과 관련된 생활 플랫폼을 개설하고, 지역의 전통문화를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즐길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 지역의 고적, 전통문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세시풍속과 그것의 의미, 옛 울산인의 생활 등 모든 전통문화 관련 자료를 한 곳에 집중시켜 지역주민이 지역의 역사와 전통의 생활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를 축적함

- 전통문화 이벤트 실시

- 전통문화와 관련된 플래쉬몹 등을 통해 젊은 세대들이 전통문화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함

※ 예를 들면, 지역의 변화가에서 전통문화 관련 음악회 혹은 전통 의상쇼 등의 재미있는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포털 등에 게재함으로써 지역의 젊은 층의 흥미를 유도해낼 수 있도록 함

○ 전통문화예술교육 강화

- 지역 대학 전통문화예술 전문가 과정 개설

- 전통문화예술은 한국 문화예술분야의 기초예술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음
- 최근 학교의 교과과정에서 전통음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의 교육기관은 적은 편임
- 체계적인 전통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지역 내 대학원에 전통문화예술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고 전문가들의 육성을 통해 지역 전통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전통문화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함

- 전통 공예학교의 설립

- 울산은 예부터 ‘무엇인가를 만드는’ 산업과 공업의 도시로 이름이 높은 곳임
- 울산의 장도, 벼루, 붓, 옹기 등의 탁월한 전통 공예 기술을 소유한 무형문화재 전승자들과 이들의 공예품은 울산 전통문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음
- 전통 공예학교의 설립을 통해 전통 공예의 시연, 교육, 체험 등을 통해 지역 전통의 우수성을 시민 및 지역의 아동 청소년 등에게 알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학교를 통한 민요 및 놀이 보급

- 어린시절에 배웠던 노래와 놀이 등은 평생동안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오랫동안 반복 지속됨
- 쉬운 민요, 전통음악 등을 선정하여 이론과 실기 등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민요합창대회 등을 신설함
- 놀이와 함께 하는 민요를 발굴 혹은 창작(신민요)
- 교사들의 국악양성 및 연수 시행

2) 전통문화의 보호와 육성

○ 전통문화의 발굴과 기록화 사업

- 울산광역시사 편찬 및 발간

- 2002년 시사발간 이후 시가 발전한 가운데 시정 상황에 대한 보완 기록 작업이 필요
- 지역의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지역 전반의 기초 및 전문자료를 체계적으로 발굴·수집·집적을 통해 지역의 역사를 새롭게 편찬함

- 울산 근현대사 구술 기록화 사업

- 지역에 대한 개인 기억과 경험은 주요 정치적·사회적 사건에서는 다룰 수 없는 지역의 일상적이고 자세한 삶에 대한 기록으로 지역사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
- 울산 근현대사의 지역의 다양한 인물, 정책, 사건에 대한 구술을 수집·채록함으로써 문헌 사료의 제약을 극복·보완할 수 있는 역사자료를 생산하고, 취약할 수 있는 지역의 근현대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함
- 특정지역, 특정계층의 생활사 구술을 통해 정사(正史)가 기록하지 않은 지역의 세세한 역사를 기록함

- 기록화 아카이빙 사업

- 각종 전통문화 관련 자료의 아카이빙
- 전통문화 생활 플랫폼을 활용한 대(對)시민 공개
- 차후 시사편찬, 구술 기록화 사업 등에 활용

○ 전통문화 인력 양성 및 지원 확대

- 무형문화재의 지속적인 발굴 및 지원 확대

- 2021년 7월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가치를 발굴하고 확산시키고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100개 종목을 신규로 발굴하여 육성·지원하는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 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함
- 이를 통해 문화재청은 2022년부터 5년간 매년 20종목 내외, 총 100종목을 선정하여, 조사·연구·교육 등 종목 보존·활용을 위한 사업에 매년 최대 2억 원, 3년간 지원하고,

우수사업에는 최장 6년간 지원할 계획임

- 전통지식, 구비 전승되는 구전 전통과 표현, 절기풍속이나 의식주와 관련된 전통 생활 관습, 민간 신앙 의례 등이 포함된 사회적 의식과 의례, 전통 놀이와 축제, 공예·건축, 미술 등을 아우르는 전통 기술, 각종 전통 공연과 예술, 기예·무예 등 거의 모든 분야의 무형문화유산이 발굴 대상임
- 전국 지자체와 협업해 발굴하되, 국가 또는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전국의 무형문화유산 중 역사·예술·학술 가치가 있는 종목을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종목에 대해서는 조사·연구, 기록화(영상, 책자 등) 종목 가치 발굴, 전승자 발굴·육성 등 전승환경 조성, 교육, 공연, 체험, 전시 등 전승 체계화 사업 등을 연차별로 지원할 계획임
- 울산도 지금까지 발굴되지 않은 다양한 분야의 무형문화재의 발굴하여 지역의 전통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무형문화재의 전승자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한 신진전문인력 확보

- 한 매체에 의하면, 국가 무형문화재의 평균나이는 약 72세이며, 이를 전승하기 위한 이수자들은 50대라고 함⁹⁾
- 이수자들의 나이가 점점 고령화되고, 젊은 층이 적어져 전통문화계승, 발전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으며 국가무형문화재 취약종목도 존재한다고 함. 취약종목 이수자들은 투잡을 가져야 생계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게 되고,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나이는 점점 고령화되어가는 것임
- 문화재청은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을 통해 신진전문인력을 확보하는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울산의 경우도 앞서 언급한 전승관, 공예학교 등을 통해 신진전문인력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해 무형문화재의 젊은 계승자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전통문화 관련 기획자 양성

-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도시의 문제를 전통문화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문화 기획자를 양성

9) 윤진욱, 사이드뷰, 취약종목 문화재 전승활동, 청년들은 왜 외면하나, 2020.07.04.,
<https://www.sid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22>

- 지역축제, 관광, 마을축제, 문화산업 등과 관련된 문화기획자를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 지역의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구체화 시킴으로서 지역의 전통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 전통문화 관련 창업 지원

- 전통문화 청년 창업 지원

- 앞서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문화의 경우 청년들의 참여가 많지 않음
- 청년의 전통문화 산업관련 창업을 통해 전통문화분야에 청년들의 진입을 유도하는 한편, 이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새로운 전통문화산업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 최근 정부에서도 전통문화창업공모를 하고 최종선정되면 사업화 자금으로 기업당 2천만 ~6천만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창업자 기업 특화 지원으로 멘토링, 교육, 홍보, 투자유치, 사후관리, 수익모델 개발 보완 등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시행하고 있음
- 울산도 청년 창업의 지원 차원에서 전통문화 관련 청년 창업을 지원할 수 도 있도록 함

3) 새로운 전통의 창조

○ 전통문화의 현대적 전승 지원

- APaMM 지원 확대

- 아시아퍼시픽뮤직미팅(이하 에이팜)은 한국적 정체성을 가진 다양한 음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창구가 되고,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뮤직 마켓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목표로 2012년, 울산에서 시작된 국내 최초의 국제 뮤직마켓임
- 에이팜은 2019년부터는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기존음악산업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뮤직마켓 플랫폼의 역할을 넘어 시민 친화적 음악축제로 그 외연을 확장하고자 하는 변화를 꾀하고 있음
- 따라서 에이팜은 울산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하고 계승한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 예술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에이팜은 이른바 로컬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국제적인

문화예술시장을 목표로 하는 축제의 형태를 띤 문화산업이기 때문에 울산의 문화도시화 전략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전통음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지역의 전통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에이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지역의 문화산업의 발전과 세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됨

- APaMM을 통한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 가입 지원

- 울산은 현재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의 예비회원 도시임
-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산업, 이를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임. 최근에는 UN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인간중심의 도시,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도시, 환경적으로 회복탄력성이 있는 도시,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중요시여기고 있다고 알려져 있음
- 에이팜과 울산의 문화도시 전략의 목표 및 전략은 창의도시네트워크의 그것에 상당히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에이팜은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자산을 토대로 한 국제적 문화산업이며, 에이팜이 기반으로 하는 음악장르는 이른바 주류음악에서 어느 정도 비껴 서 있는 로컬음악이라는 점도 창의도시네트워크가 중요시하는 포용성과 관용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에이팜을 통한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의 가입은 에이팜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울산의 문화예술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일 것으로 생각함
- 따라서 에이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 가입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전통(로컬) 음악의 발굴 및 세계화 진출 지원

- 에이팜은 그동안 380여팀의 아티스트들이 지원을 했고, 110여팀이 선발되었으며, 그 중의 몇 개팀은 세계 최대 규모의 월드뮤직 엑스포인 위맥스(WOMEX)에 초청되기도 했음
- 울산은 에이팜을 통해 음악창의도시에 가입하려고 하지만, 각종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사실임
- 지속적인 전통음악의 발굴은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고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에이팜은 이러한 전통음악의 해외진출을 도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에이팜을 통한 전통문화의 발굴과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융합을 통한 전통문화 콘텐츠 발굴

-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 발굴 사업

-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스토리가 있으면서 참신한 전통문화의 소재 및 아이템 발굴
- 전통문화가 일상생활 속에서 익숙하게 접할 수 있으며, 놀이문화로 정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

- 전통문화상품의 현대화 · 과학화 지원

- 전통문화를 연계한 공예상품 등에 디자인 개선을 지원하여 문화관광상품, 패션 생활용품 등의 상품화 개발 지원이 필요
- 현대화 · 과학화를 위한 인력양성을 위한 디자인, 인문학자, IT관련 인력 등에 대한 집중적인 양성이 필요함

-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전통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 전통문화는 콘텐츠 장착을 위한 중요한 문화자원으로 만화, 애니메이션, 방송 드라마, 영화 등의 중요한 소재이며 관광, 패션등 연관영역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 기술진화로 창작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전통문화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장르 및 산업간의 융합으로 다양한 분야로 파생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 전통문화를 주축으로 한 융복합콘텐츠 지원 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며, 융합콘텐츠 제작 및 유통에 필요한 연관요소까지의 지원이 필요함



참고자료

참고문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 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조광호(2017), 도시재생에서 역사문화콘텐츠 활용의 쟁점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20),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 길잡이
- 김영(2016), 일본의 전통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브랜드마케팅, 동아인문학
- 김동영 외(2018), 전통문화와 첨단 기술 융합산업 육성전략, 전북연구원
- 임형택(2021), '이날치' 수궁가와 문화콘텐츠 이상의 문화적 가치 : 범은 어떻게 이름을 남기는가?, 인문콘텐츠 제60호

부록

설문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ID

울산전통문화 관련 시민의식조사

안녕하십니까?

울산연구원은 울산의 시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개발 및 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본 설문은 울산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전통문화 정책의 개선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답하셔서 전통과 현대의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울산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 6월

■ 연구기관 : 울산연구원 시민행복연구실 김상우 연구위원 052) 283-7751

I.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1. 귀하는 전통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1) 전혀 관심이 없다

2) 관심이 없다

3) 보통이다

4) 관심이 많다

5) 아주 관심이 많다

2. 귀하는 울산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1) 전통구조물(태화루, 동헌, 사찰 등)
- 2) 지역 전통음식(막걸리, 고래고기 등)
- 3) 전통예술품(국악, 공예, 미술, 무용 등)
- 4) 전통 축제와 놀이(마두희, 불메놀이 등)
- 5) 명절풍습과 민속(차례, 세배 등)
- 6) 관혼상제 등의 전통의례(전통혼례 등)
- 7) 기타()

3. 전통문화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체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전통문화는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요소다	①	②	③	④	⑤
2) 전통문화는 시민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자긍심을 부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현대화로 인한 전통문화의 훼손을 막고 후대에 잘 전해 줘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전통문화는 오늘날에 맞게 다양하게 변화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전통문화는 문화산업의 자원으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II. 전통문화 참여정도 및 지원관련

4. 귀하는 평소 전통문화와 관련된 정보는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얻으십니까?

- 1)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 2) 인터넷 사이트 및 스마트 폰
- 3) 우편 혹은 이메일
- 4) 신문, 잡지, TV, 라디오
- 5) 포스터, 전단지, 현수막, 전광판 등
- 6) 주변 친구, 동료, 가족, 동호회 등
- 7) 학교 혹은 직장
- 7) 기타

1) 지역축제 및 문화체험 행사를 통해
2)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통해
3)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4) 문화재 관람 혹은 역사지 관람을 통해
5) 학술연구(서적, 논문, 포럼 등)
6) 인터넷 등 모바일 활용
7) TV프로그램
8) 기타 ()

한복체험		예절 · 충효 교육	
한옥체험		전통공예(한지, 목공예 등)	
전통놀이(연날리기, 제기, 팽이, 투호 등)		전통예술공연관람(국악, 전통무용 등)	
전통예술 교육참여(사물놀이 등)		탐방(동헌, 태화루, 암각화 등)	
전통의례, 관혼상제 체험(전통결혼식 등)		세시풍속 체험(귀밝기 술, 부름깨기 등)	
기타 ()			

- 1) 생활근린시설(공원) 및 문화복지시설(박물관, 미술관 등)
- 2)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문화재, 고찰 등)
- 3) 전문 공연 및 체험시설(민속촌, 테마파크 등)
- 4) 전통문화 전수회관
- 5) 학교 등의 교육시설
- 6) 기타()

1) 문화체험 2) 교육(자녀교육포함) 3) 여가, 휴식, 관광
4) 학술연구 5) 취미 6) 기타()

1) 관심, 흥미가 없어서
2)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
3) 사용 및 체험하는데 불편해서
4) 여가시간이 부족해서
5) 비용이 많이 들어서
6) 전통관련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7) 접근성이 어려워서
8) 기타()

11. 전통문화의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정도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울산시는 전통문화 관련 분야에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울산시는 전통문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전통문화정책이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환경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공정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전통문화 관련 전문인력의 수준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6)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향후 전통문화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중요 ← 둘다 중요 → 중요					B
	1	2	3	4	5	
전통의 원형 유지 및 가치 보존						전통의 산업화 및 융복합 확대
지역 전통 문화의 자생력 강화						전통문화의 세계화 확대
문화유산의 전승						전통문화의 현대적 활용
전통문화 전문단체의 지원 강화						전통의 대중화를 위한 저변확대
울산시 주도 지원정책 강화						전통문화 생태계 활성화 추진

13. 전통문화가 활성화 되기 위해 어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1)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2) 전통문화 전승 및 시민향유를 위한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전통문화 관계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4) 전통문화 관련 법 구축 및 제도적 기반 마련	①	②	③	④	⑤
5) 전통문화의 경제적 가치 창출 강화 및 창업지원	①	②	③	④	⑤
6)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전통문화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기타					

Ⅳ. 응답자 기본사항

SQ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SQ2. 연령	① 10대 ④ 40대	② 20대 ⑤ 50대	③ 30대 ⑦ 60대 이상	
SQ3. 거주지역	① 중구	② 남구	③ 동구	④ 북구 ⑤ 울주군
SQ4. 학력	① 고졸이하	② 대졸(전문대 포함)	③ 대학원졸 이상	
SQ5. 직업	① 자영업 ④ 판매·서비스직 ⑦ 농·어업 ⑩ 기타 ()	② 사무·기술직 ⑤ 경영/관리직 ⑧ 주부	③ 생산·기능직 ⑥ 자유·전문직 ⑨ 학생	
SQ6. 월평균 가구소득	① 200만원 미만 ④ 600~800만원 미만	② 200~400만원 미만 ⑤ 800만원 이상	③ 400~600만원 미만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울산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12-26 조례 제 208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음악, 무용, 미술, 건축, 서예, 음식, 의상, 공예 및 무예 등 우리 민족 고유의 예술 및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통문화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3. 전통문화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
4.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자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전통문화 육성) 시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문화행사 개최
2.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
3.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4.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의 지원)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21 울산연구원 기본·정책과제 목록

기본과제

- 21-01 울산광역시 실효적 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인권지표 항목 발굴
- 21-02 민간위탁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 연구
- 21-03 울산 데이터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
- 21-04 리스크평가를 통한 기후재난 저감방안 연구
- 21-05 신중년(중장년) 퇴직인력 지원책 개선 방안 연구
- 21-06 울산지역 여항 활성화 방안 연구
- 21-07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 21-08 태화강 횡단 송전철탑 활용방안 연구
- 21-09 수소충전소 경제성 확보방안
- 21-10 도시가스 소외지역 연계 수소연료전지 발전 보급 방안
- 21-11 울산원전해체기술 현황 및 발전방안
- 21-12 울산 일반산업단지 관리 전문화 및 혁신방안
- 21-13 울산광역시 노후 택지개발지구 관리방안 연구
- 21-14 생활권계획 수립범위와 실행계획에 관한 연구
- 21-15 울산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
- 21-16 울산시 폐기물 처리비용 분석 및 반입수수료 현실화 방안
- 21-17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
- 21-18 '울산 鶴'의 상징성과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연구
- 21-19 울산시민복지 기준에 따른 저소득 주민 빈곤 실태조사
- 21-20 울산시립미술관 일원 문화특화지역 조성방안 연구
- 21-21 울산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방안 연구
- 21-22 울산 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 연구
- 21-23 MICE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1-24 울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적정성 범위 산정을 위한 연구

정책과제

- 20-11 울산광역시 '2050 탄소중립' 추진 방향 연구
- 21-01 울산광역시 사회혁신 활성화 기본계획 연구
- 21-02 미래 해저공간 건설 타당성 검토연구
- 21-03 울산인구정책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방안 연구
- 21-04 동해남부선 폐선(예정)부지 활용방안 연구
- 21-05 동천 준설에 따른 태화강 유입 모래량 변화 분석
- 21-06 시 기반 울산 경제지표 분석 및 예측모형 개발
- 21-07 울산 전자산업 육성방안 연구

기본과제 2021-21

울산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방안 연구

URI 울산연구원
Ulsan Research Institute

44720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6 Tel. 052)283-7710 Fax. 052)289-7227

